

# 기후변화 대처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방안

2023학년도 ( 2 )학기

| 학년 | 반

성명( 이- )

## \* 제목 : 기후변화를 막기위한 방법

요즘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쓰레기소각, 자동차,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늘어나는데 온실가스를 줄여줄수 있는 산림이 파괴되면서 기후변화가 심해졌습니다. 현재 사계절은 봄 91일, 여름 118일 가을 69일 겨울은 87일인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래에는 봄 86일 여름 170일 가을 77일 겨울은 39일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기상이변, 강수량 변화, 해수면 상승, 사막화, 물 부족, 생물종의 감소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친환경적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그 많은 쓰레기들을 땅에 묻으면 땅이 오염되고 바다에 버리면 바다가 오염되고 태우면 온실가스가 나와서 기후변화가 심해집니다. 쓰레기를 줄이기만 해도 기후변화를 막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생산할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친환경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풍력발전기, 태양광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하기, 안쓰는 방불 끄기, 너무 덥지않은 날 에어컨 키지 않기를 해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지켜야 합니다. 나무한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25t과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내보내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막는것을 도와줍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폐기물을 재사용하고 친환경적 상품을 많이 사용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나무를 심고 지켜야 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귀찮아도 모두를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 대처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방안

2023학년도 (2)학기

3학년 1반

박●연

### 제목 : 우리 모두가 해결의 열쇠

요즘 따라 비가 오다 안 오다 한 지역에만 내리다 갑자기 쏟아지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덩달아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모두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기후변화란 기후가 변한다는 말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의 변화인데요. 요즘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는 우리가 공동으로 진지하게 대처해야 할 긴급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온난화입니다. 산업의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극단적인 기후 이상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1℃ 상승할 경우, 2020년에는 양서류가 멸종하고, 각종 전염병이 확산되며, 2050년에는 지구 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하게 되고 5℃ 상승 시엔 도쿄, 뉴욕, 홍콩,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수장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온난화는 각종 재난까지 초래합니다.

둘째 문제로는 자연재해의 증가가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인류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마다 발생빈도가 늘어 사람들에게 큰 불안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문제로 바다 수면 상승과 해양 산성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얼음이 녹아 바다 수면이 상승하고, 동시에 해양 산성화로 인해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섬들도 늘어나 사람들의 터전을 바다에게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이기기 위한 대처 방안에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으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있습니다. 화석 연료 대신 태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 및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태계 보호와 산림 재생에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 보호와 식재 프로젝트를 강화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와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말고도 사막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개인과 기업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처하는 방법은 이 교육을 잘 듣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마음이 아닌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대처방안의 실행은 우리의 노력과 협력이 함께해야 할 큰 도전에 대한 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작은 결심이 큰 해결을 만듭니다.

# 언제까지 기후변화를 듣고 넘길 것인가.

3년 송진

기후변화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계속 들었을 정도로 인간과 지구, 동식물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세계기상기구에서는 2022년도 지구 기후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미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가 올랐다고 보고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높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작다고 느껴지는 수치의 결과, 절기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평균 온도가 올라가 날씨가 건조해져 땅이 메말라 심한 산불이 발생해 꺼지지 않는 상황도 자주 나오고 있다. 이로 따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자신의 집을 잃고 점차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동물들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원활하지 않은 먹이사슬 구조로 인해 전염병도 돌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무거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인식’을 바꿔야 한다.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누군가 절약하면 되겠지’, ‘내가 이 행동을 한다고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쓰면 그만이지’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하기 마련이고 무관심 해버리는 문제가 나타난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지구에 사는 생명체로서 지구를 아끼는 데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작고 사소한 행동 습관으로 작게나마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한다. 안 쓰는 불은 꺼놓기, 먹을 만큼만 먹기, 재활용품 사용하기 등 간단하게라도 낭비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행동을 꼭 실천해야 한다. 가끔 방송에서 절약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게 행동한다고 놀리거나 비판하기 마련인데 사실 지구를 위해 절약하는 모습으로 칭찬받아야 할 좋은 행실이다. 방송사에서도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고 절약하는 모습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괜찮겠지’하는 생각을 버리고 사소한 것 하나하나 절약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다음으로 각 나라는 재생 에너지를 사용을 지향해야 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소 전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 하지만 화석연료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야 하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킨다는 심각한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적 요소와 지형을 활용해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 또한 이전에 있던 수력, 지열, 풍력 에너지들을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각 분야의 사람들은 재생에너지의 양이 적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지구를 위해 끝없는 연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산화 탄소를 줄여주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심지어 나무는 기온을 낮춰주고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좋은 쓰임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다음으로 넘길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지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을 명심하고 희망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 또한 ‘내가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 환경위기 전문가 윤순진 교수가 “미래는 오늘의 우리가 만든다”라고 전한 것처럼 현재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한다.



# 기후변화 대처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방안

2023학년도 ( 2 )학기

3 학년 | 반

성명( 01 )

\* 제목 : 기후변화 네 글자에 담긴 것.

기후변화는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후변화이지만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뉴스나 인터넷을 보지 않으면 평화로운 일상이고,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기후변화는 왜 해결이 어렵고, 지금까지도 언급이 되는 것인가요?

지구의 환경은 평균온도 15도, 산소농도 21%, 바닷물 염분 농도 3.4%의 생물체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이 퍼센트도 조화를 이루며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화는 깨지고 있습니다. 산소농도 1%만 올라가도 낙뢰로 인한 산불이 70% 늘어나고, 해수의 염분 농도가 6%만 되어도 해양생물 대부분이 멸종합니다. 그리고 이 조화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악영향은 또 있습니다.

악영향의 중심에 북극이 있습니다. 북극과 지구온난화하면 항상 나오는게 있습니다. 바로 해수면 문제입니다. 해수면은 생각보다 영향이 큼니다. 해수면 상승은 그저 바닷물이 많아진다는 그런 것이 아닌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섬은 잠기고, 터전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극지방 얼음 연구원 로비말렛은 '4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극에 있는 북극곰은 멸종될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빙하의 면적이 감소하며 유전적 다양성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북극곰 다른 지역의 종과 교배하여 번식하는데 다른 종은 만나지 못하고, 같은 종끼리 교배를 하기 때문에 멸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스텍 환경공학과 교수님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온실가스 저감을 했을 때의 영향, 효과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문제 해결은 힘들고, 아직 경각심을 느끼지 못해서 '안해도 잘 살았는데, 상관없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에 문제와 다른 문제가 있는데 모른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일생 미래에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